



진안읍,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 실시

진안읍(읍장 정상화)은 26일 읍사무소 및 환경과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타리~남광아파트 구간 및 진안시장 주변에서 국토대청결 운동 및 쓰레기3NO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을 맞이하여 진안군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길가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불법 투기 쓰레기를 수거 및 단속했다. 또한 쓰레기 수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진안시장 인근 상가 등을 찾아 쓰레기 3NO운동 홍보 전단을 배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진안지부 등 설 명절 떡국 나눔활동

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정미경)를 비롯해 지역 내 5개 농협(하남구 진안농협 조합장 신윤빈 백운농협 조합장, 김영배 부귀농협 조합장, 신인성 전북인삼농협 조합장, 송제근 무진장축협 조합장)은 설 명절을 맞아 26일 진안군 반월도인 사랑의 집을 찾아 사랑의 떡국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27일까지 진안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반월노인사랑의집, 진안어린이집, 예술지역아동센터, 성수지역아동센터, 행복한집)에 희망찬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떡국떡, 과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정미경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 구원을 위하여 마련됐고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떡국을 전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격려

진안군은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를 방문해 시설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위문방문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방문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군민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따뜻한 설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여성자원활동센터, 사랑꾸러미 나눔

김제시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조금자)는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사랑꾸러미'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설 명절에 필요한 떡국떡, 김, 계란을 꾸러미를 만들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80세대에 전달해주며 안부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꾸러미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장 보러 갈 엄두도 안 났는데 이렇게 필요한 선물과 위로의 말을 들으니 너무 고맙다"며 반겼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조금자 회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겪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과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하여 훈훈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소연속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따뜻한 설 명절이 될 것 같다"며 참여해주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진봉면 이장협의회, 사랑의 떡국 떡 나눔

김제시 진봉면(면장 오승영)은 진봉면 이장협의회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24일 떡국 떡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떡국 떡 소분부터 포장까지 손수 진행하였으며, 준비된 200여 개의 떡국 떡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배부하였다. 더불어 해당 떡은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수확한 쌀을 기부하여 마련됐다. /김제=곽태기 기자

호남 유일 프로탁구리그 출전

28일 개막... 장수군청 여자탁구단, 안산시청 등 8개 팀과 경기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이 28일 수원에서 개막하는 2022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KTTL)에 출전한다. 올해 처음으로 출범하는 한국프로탁구리그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총 27개팀이 222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에 돌입하게 되며,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은 내셔널팀 여자부로 안산시청, 수원시청, 대전시청관리공단, 과주시청, 금천구청, 양산시청, 포항시체육회 등 8개 팀과 경기를 치르게 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경기장은 경기대 수원캠퍼스 내 체육관을 개조한 곳으로 300석 규모의 탁구장 꽃가마 탁구대 등이 설치돼 있으며 1억 원의 준비를 동원해 카메라맨 PD가 없이 경기를 생중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무인 중계 시스템을 조성했다. 개막전은 28일 오후 6시 대한항공과 포스코에너지의 맞대결로 시작하며, '3세트제'가 도입돼 승부에 박진감을 높일 예정이다. 5전 3선승제지만 3-0 승부는 없으며 반드시 네 번째 경기인 헤이스 매치를 치러야 한다. 장수군은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의 프로리그 참가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추후 참가지역별 순회 경기가 이뤄질시 장수군에서도 한국프로탁구리그를 개최해 장수군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보성 장수군청 여자탁구단 감독은 "한국 탁구계가



20년 간 뛰어왔던 염원이었던 한국프로탁구리그에 출전하게 된 만큼 장수군의 명예를 걸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영수 군수는 "지난해에는 장수군 장애인체육회 탁구단이 좋은 성적으로 군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줬는데 올해는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이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안겨주길 바란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 펼치시길 바라며,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부상 없이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성지로 우뚝 서길"

민주평통 정읍, 전봉준 동상 재건립 성금 전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회장 김태동)가 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을 위한 국민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민평통 정읍시협의회는 26일 전봉준 장군과 무명 동학농민군을 포함한 새로운 군상(群像)을 제작하는 데 활용해달라며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추진위원회'에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김태동 협의회장은 "1894년 당시 쓰러져 가는 조선을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농민군의 마음을 생각하며 모금 운동에 동참한다"며 "정읍은 대한민국 근대사에 중요한 분수령을 제공한 곳인 만큼 이번 동상 건립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 우뚝 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관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건강·장수 기원... 진안 노인복지관 설명절 행사 진행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관장 장상원 이하 복지관)은 26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함께 설 명절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복지관 직원들은 정성스레 한복을 차려입고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덕담을 주고받는 등 즐거움을 나눴다. 또한 세배 후엔 제기차기, 비석차기, 고리걸기, 투호 등 민속놀이를 어르신들과 함께 하며 동심으로의 추억여행을 선사했다. 평소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백모 어르신은 "코로나로 이번 설도 자녀들이 오지 못한 채 슬슬이 보내려는 참인데,

노인복지관이 아들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전준성 군수는 "새해 어르신들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일인원 호랑이의 기개로 군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며 "이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종이 전파력이 강하므로 서운하시겠지만 타지에 사는 자녀들과 비대면으로 만나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관은 취미, 교양, 건강, 웃음치료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진행, 찾아가는 재가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앞장서며 노인 복지를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부귀면, 설 명절 맞아 저소득 가구 위문

진안군 부귀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박춘선) 직원 20여명은 26일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1:1 결연을 맺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명절에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의 안부 확인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해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말벗이 되어 드리고 손수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베풀었다. 위문을 받은 박모 어르신은 "코로나로 인해 명절에 자녀들도 오지 못하고 하면서 마음이 쓸쓸했는데 면장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춘선 면장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직원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명절 위문을 통해 우리 주변 이웃의 어려움과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귀면은 이번 설 명절에 관내 저소득 180가구에 공동모금회 생계비, 후원물품 등을 전달하며 온기를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송동면, 다문화가정 위한 물품 기탁

남원시 송동면은 박노일 재경 송동면향우회장이 고향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이불세트 46세트와 라면 150박스(환가액:10,000천원)를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박노일 회장은 아내사이버터 회원으로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나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고향 어르신들 위해 물품을 기탁하는 등 매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박노일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이지만 고향 분들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관주영 송동면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을 위해 행정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사내방 ▲최민철 전북도 소방본부장



백성기 남원소방서장, CJ공장 찾아 현장지도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백성기 소방서장이 지난 26일 화재 취약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해 인월전통시장과 CJ제일제당 공장을 방문해 화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지도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지도도는 난방기구와 화기사용이 빈번해지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관리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 화재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했다. 내용은 ▲화재 발생시 초동대응요령 및 대피경로 지도 ▲소방시설 및 소방출동로 점검 ▲겨울철 난방기구 및 화기 취급 등 소방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백성기 서장은 "겨울철은 화재 취약시기인 만큼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웃사랑 실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난 25일~26일 위문품 및 성금을 전달하는 온정의 손길 나눔 릴레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산동여성대, 대강여성대, 인월여성대, 주생남·여성대, 남원남성대, 대신남·여성대, 송동남·여성대가 면사무소에 물품 성금 및 반찬 나눔 등이다. 한편 공든애, 이미숙 연합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의용소방대의 작은 마음이 전달돼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에 감사장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26일 동남원새마을금고 도동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대상자인 금고 창구직원 정모 등은 70대 고객이 현금 3,000만 원을 인출을 요구해 사용자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잘하지 못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112신고 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피해를 예방했다. 이동민 서장은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한 직원 포상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최병범)는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대상 의심자를 끈질기게 설득, 5천 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관은순 순경에 대해 포상했다. 관은순 순경은 고객이 고객의 현금을 인출하려한다는 은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의 사체를 설명하였으나 본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경찰의 도움을 구구 거절해 우선 자력으로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낯빛이 어둡고 신원불상의 사담과 잠시간 통화하는 등 수상한 점을 느끼고 재차 피해자의 자택으로 출동해 끈질기게 설득 끝에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5천 만원의 현금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날 이동민 서장은 관은순 순경에게 즉상을 수여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소명을 하며 지역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의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